

# 인공지능, '혁신'에 위협성 가려져

## 기계학습의 불편한 현실 간과해선 안돼... 개인비서의 개인정보 유출·보안 시스템 해킹 가능성 등

불과 10년 전만 해도 꿈만 같았던 현실 세계에서의 인공지능(AI)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명과 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I로 인해 인간의 삶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과 이에 따른 위험이 함께 따라올 수 있다는 '안갯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최근 업계에 따르면 AI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등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 역시 오래전부터 AI에 대한 위협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강력한 AI의 등장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인류에게 있어 '최고'가 될지 혹은 '최악'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호킹 박사는 "AI가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단계에 왔을 때 그들의 목적이 인류의 목적과 다를 수 있다"며 "AI가 완벽한 형태로 발전한다면 인류의 종말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봤던 일들이 실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AI가 '인류의 위협'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시점은 아직 먼 미래라는 것이 전문가들 시각이다.

최승진 포스텍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인공지능 비서를 예로 든다면 AI는 아직까지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는 수준"이라며 "음성 인식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발전을 이뤘지만 현재 AI



홍콩에 있는 AI 로봇 제조사가 개발한 로봇이 인류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지난 3월 20일 글로벌 IT 미디어 씨넷(CNET) 등에 따르면 홍콩에 있는 로봇 제조사인 헨스 로보틱스가 개발한 AI 로봇 '소피아'가 그 개발자인 데이비드 헨스 박사의 "인류를 파멸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인류를 파멸할 것"이라고는 섬뜩한 답변을 했다.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기술로는 조금만 복잡한 질문을 던져도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내놓는다"고 설명했다.

AI는 소위 '강한(Strong) AI'와 '약한 AI'로 나눌 수 있다.

터미네이터 같은 인간의 능력 이상을 갖춘 강한 AI는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애플의 시리(Siri)와 같은 불안전하고 '약한(Weak) AI'를 만드는 것이 한계다.

그렇다고 AI의 중심이 되는 머신러닝(기계학습)이 일상생활에서 보기 힘든 것도 아니다.

이메일에서 스팸메일 등의 유해성 콘텐츠가 자동으로 걸러지는 것도 기

계학습 알고리즘으로 돌아간다.

AI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셈이다.

이같은 한계로 인해 이용자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로 보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것. 예를 들어 핸드폰에 AI 개인비서가 있다면 AI와의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노출하게 된다.

프로세스를 통해 전송된 데이터가 따로 저장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부자 입장에서는 AI를 통해 분석된 정보에 다다를 수 있다.

이를 운영하는 회사 측은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충분히 사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다.

실제로 AI 개인비서 서비스의 초기 버전인 애플의 시리나 삼성전자의 S 보이스를 봐도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수다.

즉, 가장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있다. 첨단기술이 주는 편리함이지만 개인정보 노출로 야기될 수 있는 불편함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AI를 사용한 보안 시스템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 반대로 이를 악용한 해킹이 일어날 수도 있다. 물론 업체들은 자체적인 개인정보 정책이나 보안 시스템 등을 통해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건은 언제나 터질 수 있다.

인공지능 전문가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장은 "영화 터미네이터나 허(Her), AI 등에서 봤던 내용은 먼 미래에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직은 기술의 한계로 AI가 좁은 분야에서만 쓰일 수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는 것은 현재는 AI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되기 시작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 앞에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를 주축로 열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관련 전경련 및 재벌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민변 부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시공성 우수 복합시트형 점토 차수재 개발

### ECO융합섬유연-골든포우

ECO융합섬유연연구원(원장 백철규)은 토목건설현장의 차수 시스템 분야의 선도기업인 (주)골든포우(대표 심진섭)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청 산연전용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1년여에 걸쳐 현장 시공성이 우수한 복합시트형 점토차수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복합시트형 점토 차수재는 제조 후 운반과정이나 현장시공 작업 중 점토 차수재가 손실되는 단점이 있었으나, 이번 기술개발을 통해 특수 기능성 부직포를 제조 공정부터 적용함으로써 점토 차수재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작업자들의 작업성이 우수하고, 폐기를 매립지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침출수 등이 지하수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 및 방지할 수 있다.

ECO융합섬유연연구원에서는 점토 차수재의 수용성 부직포, 벤토나이트의 최적 기능성 발현을 중점적으로 맡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주)골든포우는 최적의 생산 공정 개발을 통해 제품의 품질규격 및 시공시방 규격을 수립했다.

(주)골든포우 유종조 연구소장은 "토목 현장에서의 시공성이 우수하고 차별화된 복합시트형 차수재를 개발함에 따라 국내·외 토목용 섬유 시장에서 기술적 경쟁력 우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 TV 홈쇼핑서 국산차 구입 가능해진다

### CJ·현대·우리·GS 대상... 개정규정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

앞으로는 TV홈쇼핑에서도 국산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규는 자동차와 보험을 함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중고차와 수입차는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는 CJ·현대·우리·GS 등 4개 홈쇼핑 사업자에게는 국산차 판매가 금지돼 있다. 만약 국산차를 팔면 보험대리점 등록이 취소된다.

정부는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국내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TV 홈쇼핑사를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까지 40일 동안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의결 및 공포를 한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기존 자동차 대리점 등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번 개정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구독신청 288-9700

## 트럼프 시대 반도체 '맑음' · 스마트폰 '흐림'

### 세트업체 · 부품업체 부진 가능 실제 정책 보다 완화시킬 수도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전자·IT 업계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4일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주의 무역 공약이 이행될 경우 국내 반도체 업계는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섭게 시장에 진입 중인 중국업체들이 미국 반도체기업과 M&A나 기술 협력할 여지가 크게 좁아져 성장 속도가 더뎠을 것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아이폰 생산 거점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들어 이것이 실현되면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아이폰의 중국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게 되면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자국 내 판매비중이 커질 것이고 이 것은 반도체 업계에는 이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채용하는 주력 디램 용량이 3GB인 아이폰7 보다 6GB 이상을 채용하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성장은 그만큼 반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세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이폰7의 중국향 판매 문화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으나 중국 업체들의 판매 확대와 반도체 탑재량 확

대로 반도체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반면 스마트폰과 가전 등 세트업체들의 출하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산 업체들에 대한 우대정책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멕시코에서 생산돼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에도 35% 관세를 매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현재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수익성과 판매량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으리라는 전망이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세트업체 부진은 부품업체에도 악영향

을 줄 것"이라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제품들도 45% 관세가 부과되면 이 역시 한국 IT 부품업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실제 정책을 보다 완화시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지나치게 비판할 것은 없고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적인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 IT 기업들에게 손해가 되는 만큼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